

HYUNDAI E&C TODAY

2016 / 07 / 13
Wednesday
Vol. 318

05 8000만장 이미지의 힘, 인스타그램
Instagram: Power of 80 million pieces of image

08 요리 고수 4인방과 나는 식탁수다
A chat with four cooking masters

11 키워드로 풀어본 리우 올림픽 이모저모
Keywords for Rio 2016 Olympics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흥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http://news.hdec.kr

국내 최초·최대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 “세계시장에 도전장”

Korea's first and largest Dangjin thermal power plant units 9 and 1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는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이자 최초로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1~8호기(500MW)보다 두 배가량 크다. 현대건설은 2012년 10월 착공한 이래 44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향후 현대건설은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의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석탄화력발전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6, 7면

The Dangjin thermal power plant units 9 and 10 are the first and largest 1,000 MW-class coal-fired power plants in the country, double than the existing eight units with a capacity of 500 MW. Hyundai E&C began the construction in October 2012 and completed the project in 44 months. Based on construction knowhow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the builder is planning to make active inroads into the global coal-fired power plant market. ▶ Continued on page 6 and 7.

현대건설, 정독도서관에 북촌(北村)의 예술을 담다

7월 8~9일,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타일 부착 및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현대건설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난 8, 9일 ‘타일 부착 및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이 본사 사옥이 있는 북촌 일대를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난 8~9일 양일간 북촌 미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정독도서관에서 ‘타일 부착 및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노후한 정독도서관의 내·외부 벽면을 벽화공간전문 사회적기업 ‘월메이 드’와 협력해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미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었다.

현대건설 임직원 40여 명은 지난 8일, 노후한 정독도서관 초입로와 건물 내벽 담벼락에 타일 부착과 페인트 채색작업을 진행했다. 이튿날에는 전날 활동에 이어 임직원과 가족 30여 명이 모자이크 타일 부착과 줄눈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양일간 펼친 봉사활동 끝에 정독도서관의 낡은 담벼락이 북촌 고유의 예스러운 분위기를 살린 장소로 재탄생했다.

현대건설은 또 정독도서관이 매년 외국인 관광객 약 300만 명이 방문하는 북촌의 명소인 만큼 포토존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계동 사옥 주차장 유휴공간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북촌 관광안내도를 설치한다. 하반기에는 삼정동 인근의 독립운동가 오마주 벽화도 복원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정독도서관 타일 벽화 봉사활동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재동초등학교 외벽 담벼락 벽화 그리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북촌 미관개선사업”이라며 “현대건설이 북촌에 위치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2010년 종로구 가회동과 1사(社) 1동(洞) 협약을 맺은 후 북촌 거리 환경 정화, 명절맞이 독거노인 배식봉사·서산미 전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Hyundai E&C adds artistic touch to Jeongdok Public Library in Bukchon

Hyundai E&C is taking the lead in turning Bukchon in which its head office is located into a culture and art district.

As part of an initiative to improve the scenery of the Bukchon area, Korea's primary builder set to lay tiles and paint a mural in Jeongdok Public Library located in Jongno-gu on July 8 and 9. In cooperation with Wellmade, a social enterprise, the builder created an artistic space where modern touch harmonizes with traditional beauty by decorat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worn out wall of the library.

About 40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company attached tiles to and painted the access road and the wall on July 8. Next day, 30 employees and their family members laid mosaic tiles and filled the joints. Their intense two-day effort transformed the old wall of the much loved public library into a great place with a charming, old-age atmosphere unique to Bukchon. Moreover, Hyundai E&C is planning to create a photo zone in Bukchon visited by about three million foreign tourists every year.

On top of this, the company will install a tourist map in the unused space of its parking lot in Gye-dong, Seoul. The builder will also restore a mural depicting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neighboring Samcheong-dong area.



그룹사 소식

현대차그룹, 동반성장 문화 확산 앞장

현대자동차그룹이 6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1차 현대기아차 기술나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417개의 우수기술을 나눔기술로 제공하고 이 중 141개 기술(180건)을 무상이전(통상 실시권 허여)했다.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제공하는 총 417개의 나눔기술에는 변속기, 새시, 차체 등 216건의 구동기술과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엔진부품, 가솔린엔진 등 엔진기술 155건 그리고 자동차 공통 기술 46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41개(180건)의 나눔기술을 무상이전받은 29개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 사업추진 의지, 구체적 기술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해 현대차그룹이 최종 선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술나눔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IDEA' 본상 수상

현대자동차의 신형 아반떼가 '2016 IDEA'의 본상 중 하나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IDEA'는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는 미국 최고의 디자인 상이다.



신형 아반떼는 현대차의 제품개발 철학인 '기본기 혁신'에 현대차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을 더해 감각적이고 정제된 디자인을 구현해 역동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외관과 운전자 편의를 극대화한 인간공학학 실내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피터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현대차의 대답하고도 창의적인 디자인 리더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아반떼는 현대차의 제품개발 철학인 '기본기 혁신'에 현대차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을 더해 감각적이고 정제된 디자인을 구현해 역동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외관과 운전자 편의를 극대화한 인간공학학 실내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피터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현대차의 대답하고도 창의적인 디자인 리더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쪽방촌 19가구에 '디딤돌 하우스' 선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역 쪽방촌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달 30일 '디딤돌하우스' 2호의 입주식을 가졌다. 총 19가구가 입주하는 이번 사업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쪽방 내부 리모델링, 외부 개보수, 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7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2억원을 지원했다. '디딤돌하우스'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서울시가 협력해 쪽방을 리모델링하고 저가의 월세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에는 동대문 21가구의 '디딤돌하우스' 1호도 개소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월 27만~28만원의 월세를 18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재입대함으로써 쪽방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는 단순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사회복귀까지 동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쪽방촌 주민 거주환경 개선과 자활에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장·부서 소식

UAE 원전 현장 이흥구 부장, '건설의 날' 대통령 표창

UAE 원전 현장의 이흥구 부장이 지난 달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건설의 날'은 1981년 건설인의 화합을 다지고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돼 매년 정부 차원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건설인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 부장은 영광, 월성, 신고리 원전, UAE 원전 등 국내외 원전공사와 북한 경수로 현장 등에서 근무하며 플랜트 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며, 특히 UAE 원전 공사는 수주 단계부터 참여해 원전 수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부장은 "지난 26년간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축적한 시공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건설현장에 첨단 시공 기술을 적용해 모범적인 시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디에이치아너힐즈, 힐스테이트 동탄 동반수상 '쾌거'

상반기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아파트 대상 수상

우리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THE H)와 '힐스테이트'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주거문화대상에서 나란히 수상을 거머쥐며 주택사업 부문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디에이치아너힐즈'와 '힐스테이트 동탄'이 지난 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종합대상과 아파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환경주거문화대상은 건축미와 실용성, 친환경성 등이 탁월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주거시설에 주는 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두 번 개최된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우리 회사의 프리미엄 아파트



디에이치아너힐즈 조감도(왼쪽), 힐스테이트 동탄 조감도.



브랜드 '디에이치'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호텔 같은 집'을 콘셉트로 공용공간의 바닥과 벽체를 고급 천연대리석으로 마감했고, 역대 최대의 가구당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는 등 품질 경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탄2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단지인 '힐스테이트 동탄'은 '통합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 최첨단 주거시설로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시설을 접목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1순위 청약 결과 총 104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4861명이 몰리면서 평균 42.77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으며, 계약 5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THE H Honor Hills, Hillstate Dongtan win awards

THE H and Hillstate, apartment brands of our company, have cemented their reputation as a strong player in the housing business sector by receiving one of Korea's most prestigious awards.

THE H Honor Hills and Hillstate Dongtan have won the prizes at the 2016 Hankyung Residential Cul-

ture Awards on July 7. The Hankyung Residential Culture Awards organized by the Korea Economic Daily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re held two times in a year, one in the first half of a year and the othe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 awards are given to residen-

tial facilities which are outstanding in terms of architectural beauty, practical value, eco friendliness and consumer satisfaction.

THE H Honor Hills, the first development project of our company's premium apartment brand, was awarded the grand prize in recognition of its exceptionally high

quality.

Hillstate Dongtan located in Dontang 2 New Town scored high as the cutting-edge apartment complex offering 'integrated smart-home services' successfully combined a variety of facilities designed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2016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산업부장관 표창



'2016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임직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지난 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매년 녹색경영 확산에 이바지한 기업과 자치

단체를 선정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상하는 상이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 최초로 모바일 IT 기술을 활용한 '현대건설 Mobile HSE'를 개발하고, 국가별 『환경관리 기준집』을 발간하는 등 환경경영과 산업

발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우리 회사는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Korea'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2년 연속 선정되고, 4년 연속 '탄소경영 섹터 워너스'를 수상한 바 있다.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강연

우리 회사가 6일 서울 계동 별관 지하2층 대강의실에서 차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영학적 분석'이라는 주제의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KAIST 경영대학원 장대철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미국 대형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 직원의 부정부패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윤리 문제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기업 전체의 관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드라마 <미생>에서의 극중 상황을 열거하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윤리경영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청렴도 선진국인 뉴질랜드

와 후진국인 그리스를 비교·분석해 이해를 도왔다.

우리 회사는 매년 본사와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 대상으로도 윤리교육을 진행하는 등 투명·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성수역 현대테라스타워' 7월분양

우리 회사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14-41 13번지 일대에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인 '성수역 현대테라스타워'를 분양한다. 성수지역 최초 트윈타워 구조로 지하 4층~지상 15층, 대지면적 약 4779㎡, 연면적 4만 5535㎡ 규모다.



'성수역 현대테라스타워' 조감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2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성수지역 최초의 트윈타워로 구성되고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성수역 현대테라스타워는 성수·뚝섬역과 더불어 영동대교·성수대교·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외곽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길에 마련된다.

분양문의 1644-8452

토양 정화분야 환경신기술 인증받아

우리 회사 연구개발본부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제498호)을 인증받았다. 이번에 획득한 신기술은 건식 미세 토양 정화 기술로 토양 정화 공정을 간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19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2015년 상반기 대비 약 88% 증가한 30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환경신기술 1건을 신규로 취득해 동종사 중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개정된 PQ 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물과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중금속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건식 미세 토양 정화 기술을 개발해 공정을 간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19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2015년 상반기 대비 약 88% 증가한 30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환경신기술 1건을 신규로 취득해 동종사 중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개정된 PQ 기준).

This summer, it's all about animation

July 08

Theaters around the country will be filled with big-budget animated features this summer, some of which feature work by Korean animators and voice 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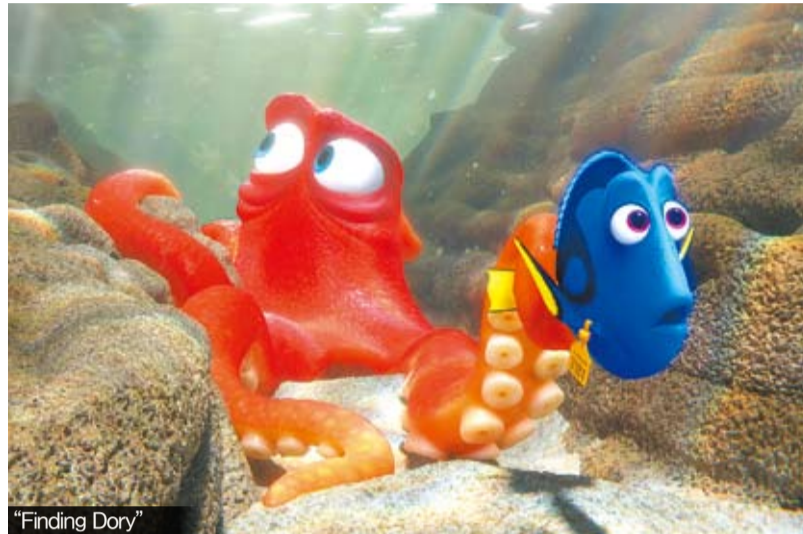
According to CJ CGV, theaters see their highest attendances in July and August. Most schools go on a month-long summer break starting in mid-July, and people unable to escape the city often spend time in icy, air-conditioned theaters to beat the sizzling heat.

The most anticipated is likely "Finding Dory," the sequel to the 2003 smash "Finding Nemo," which hit local theaters on Wednesday.

The film by Pixar Animation Studios was originally slated to open on Thursday, but its release date was moved up to capitalize on the buzz the film is creating in the North America.

"Finding Dory" saw a massive \$136.2 million debut on June 17 in the North America, breaking the opening-day record for an animated film last set by "Shrek the Third" (2007).

Just like other Pixar hits, "Finding Dory" featured work by several Korean animators, including Erik Oh.



"Finding Dory"

"If 'Finding Nemo' was a story about fatherhood, 'Finding Dory' is about how little kids change and grow," said Oh in an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late last month.

"Dory struggles with short-term memory loss, and if we think of it as a disability, the film can be seen as the story of a little kid overcoming obstacles and learning to navigate the world."

Another upcoming feature is the fifth and final installment of the "Ice Age" series, "Ice Age: Collision Course,"

As always, the fifth "Ice Age" opens with the squirrel Scrat's obsession with acorns. This time, his tireless pursuit of the treat puts the entire solar system in peril, and Scrat's best friends have to venture outside earth to save it.

Targeting younger audiences, many foreign animated films use different voice actors to redo dialogue in local languages rather than using subtitles, and "Ice Age: Collision Course" is no exception. "Ice Age: Collision Course" opens on July 21.

One of the most highly recommend-



"The Secret Life of Pets"

"Ice Age: Collision Course"

ed choices for families is "Norm of the North," which opens July 27.

The film focuses on the English-speaking polar bear Norm, who tries to stop the rich Mr. Greene from building a mansion in the Arctic.

Young animal lovers will appreciate "The Secret Life of Pets," which opens Aug. 3.

It tells the story of Duke, a loyal dog whose daily routine revolves around waiting for his owner Katie - until he stumbles on a group of abandoned pets led by the white rabbit Snowball.

By KOREA JOONGANG DAILY

올여름 극장가 애니메이션 열전

올여름 극장가는 고예산 애니메이션으로 풍년이다. 이 중에는 한국 애니메이터와 성우들이 활약한 애니메이션도 있다.

CJ CGV에 따르면 7월과 8월에 극장 관객 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7월 중순에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도시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극장에서 한여름 뜨거운 더위를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기대되는 애니메이션은 2003년 대히트를 기록한 <니모를 찾아서>의 속편으로 7월 6일 개봉하는 <도리를 찾아서>다. 이 영화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작품으로 당초 7월 7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북미에서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

해 개봉일을 앞당겼다.

<도리를 찾아서>는 북미에서 6월 17일 개봉과 동시에 무려 1억3620만 달러를 거둬들여 2007년에 <슈렉 3>가 달성한 애니메이션 개봉일 기록을 갱신했다. 픽사의 다른 히트작들과 마찬가지로 <도리를 찾아서>도 예외 없이 비록한 여러 명의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릭 오는 <니모를 찾아서>가 부성애에 대한 이야기라면 <도리를 찾아서>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며 "도리는 단기 건강증을 겪고 있는데 이를 장애라고 보면 이 영화는 어린아이가 난관을 극복하고 세상을 탐험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편인 <아이스 에이지: 지구 대충돌>이다.

늘 그렇듯이 다섯 번째 <아이스 에이지> 역시 도토리에 집착하는 다람쥐 '스크랫'으로 문을 연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스크랫'의 지치지 않는 도토리를 향한 애정이 태양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스크랫'의 친구들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구 밖으로 여행을 떠난다.

어린 관객을 타깃으로 하는 외국 장편 애니메이션은 자막보다는 여러 성우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언어로 다시 더빙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스 에이지: 지구 대충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이스 에이지: 지구 대충돌>은 7월 21일 개봉한다.

가족 관객을 위한 추천작으로는 7월

27일 개봉하는 <빅>이 있다. <빅>은 북극곰 '놈'이 북극에 저택을 지으려고 하는 부자 '미스터 그린'을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이 관객들이라면 8월 3일 개봉하는 <애완동물들의 비밀 생활>을 좋아할 것이다.

주인인 '케이티'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충성스러운 강아지 '듀크'가 하얀 토끼 '스노볼'이 이끄는 버려진 애완동물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Key expressions

- capitalize on ~을 활용하다, 기회로 삼다
- obsession with ~에 대한 강박관념
- stumble on 우연히 발견하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Question 유형

Q What will you do on this weekend?

Last week, I couldn't make my promise with my brother because of my work.

So I promised I will have time with him this weekend and buy him dinner.

We will go to the theatre and have dinner together. I will buy him Chicken and beer. That's his favorite.

The movie is on him. He picked it. So, this weekend is my brother's day.

We hadn't met for a long time, so we have a lot to talk. In this time, I must make my promise. That's my plan on this week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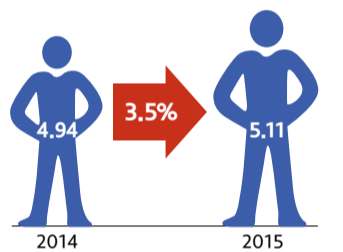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Korea has 5 million single-person households

June 30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in Korea topped the five million level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and some 60 percent of those people were married at least once.

Going it alone
Number of single person households
Unit: million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on Wednesday,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hit 5.11 million in October 2015, up 171,000, or 1.3 percen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mong the total, 59.2 percent were or are married but are living alone, up 3.5 percent from a year ago.

"Many of them said they are living alone because their spouses have passed away or they have divorced," a Statistics Korea official said. "And the rest said they have spouses that don't live with them for various reasons such as jobs or education."

South Gyeongsang recorded the largest ratio of single households, 33 percent of total households. It was followed by South Jeolla (32.8 percent) and Gangwon (32.1 percent). The ratio was the lowest in Incheon at 24 percent.

"Rural areas tend to have more single households since the population in general is aging out there compared to big cities in the nation," said Shim Won-bo, a director at Statistics Korea.

By KOREA JOONGANG DAILY



외국인 직원 Talk/Talk/ It is a great privilege to work for Hyundai E&C



Muhammad Mansha
Pakistan
(Mechanical Construction Engineer, Vietnam Mong Duong Coal Thermal Power Plant Project)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 am a mechanical engineer with 21 years of experience in EPC projects. I started my career with Hyundai E&C in March 2010 to carry out Q-1 Project in Qatar.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Hyundai E&C is a well-reputed EPC company with worldwide recognition. It is a great privilege to work for a respected company like Hyundai E&C. I consider myself as an innovator and I would love to work for an organization that is leading in the global stage and can give ample opportunity to develop my career path. I intend to strive hard and fulfill the goal of Hyundai E&C in the field of the EPC business by pursuing my career together with Hyundai E&C.

Q Whenever you feel stressed because of the heavy workload, how do you

manage it?

I generally thrive under pressure. I use it to help channel my energy into accomplishing as much as possible. I'm sufficiently experienced to appreciate that there is only so much I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capable of, and the solution is not to panic but to remain focused on delivering my very best. I try to get rid of work related stress by doing my job on time. I make achievable daily and 3-day plans and closely monitor them.

Q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miss your family? Do you often go to

your country to see your family?

I go to my country to see my family during my scheduled vacation. I just remember the good times and memories I had with them and the things we did together. I try to be in touch with my family by talking to them over the phone or through video calls after my work.

Q Finally, please give a word about Hyundai E&C newspaper.

Sometimes I read Hyundai E&C newspaper on the Internet. It is really a valuable resource to get latest update about Hyundai E&C and Korea as well. I



Muhammad Mansha and his family

appreciate that Hyundai E&C has this kind of news letter to share the latest news of the company among employees.

R&D 혁신 스토리

사람과 환경, 사회를 생각하는 예술로서의 건축



1 1989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프랭크 게리의 대표작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전경, 2·3 우리 회사가 시공한 강릉 씨마크 호텔(위)과 카타르 국립박물관(아래)은 각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와 장 누벨의 작품.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al Prize)

프리츠커상은 1979년 하얏트호텔 체인을 소유한 하얏트재단 전 회장인 제이 A. 프리츠커 부부가 제정한 건축 분야 최고의 상이다.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 안도 다다오 등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수상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프리츠커상의 이념과 수상자들의 작품을 통해 건축 디자인의 무한한 영향력을 살펴봤다. 글=차현호(건축가)

인간과 환경을 널리 이롭게 하다

올 1월 하얏트재단은 41번째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칠레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를 선정했다. 올해 49세인 그는 최연소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재단은 선정 사유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주고, 혁신과 영감으로 건축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발표했다. 프리츠커상은 건축을 통해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리츠커 가문은 19세기 후반 이스라엘에서 미국 시카고로 건너와 자리를 잡은 유대인 집안이다. 이들은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는데, 프리츠커상 또한 이 중 하나다.

건축의 지평을 넓힌 역대 수상자들

프리츠커상의 1회 수상자는 필립 존슨이다. 상을 받았을 때 나이는 79세였는데, 당시 그는 20세기를 이끌었던 건축계의 대부라 불릴 정도의 거장이었다. 실제로 뉴욕 파이프의 일원인 리처드 마이어나 해체주의자 자하 하디드 등 프리츠커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그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는 하나의 디자인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의 흐름들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변화시켜 갔다. “인생이 재미난 이유는 변화하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그는 계속 진화·발전한 셈이다. 근·현대 건축의 중요한 흐름을 예측하고 창조한 필립 존슨의 업적은 프리츠커상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바가 있다.

10년 뒤인 1989년에는 혁신적인 디



프랭크 게리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장 누벨

인으로 건축을 조형예술의 지위로 끌어올린 프랭크 게리가 수상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티타늄 강판이 마치 종이 휘듯 구부러지며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자유로운 조형미를 보여주는 이 건물은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도시 속에서 빛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이 미술관은 빌바오시의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맞물려 문화 예술을 통해 도시를 살린 성공사례로 인용되며, ‘빌바오 효과’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올해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칠레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저소속을 위한 ‘반쪽짜리 집’

관을 보면 기존 조형미의 기준인 비례, 질서, 조화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메가로폴리스가 되어가는 현대 도시에 대한 해석과 기존 질서에 구애 받지 않는 과감함, 새로운 형태의 도시적 감수성이 눈에 띈다.

2010년대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공간을 상실한 이들에 대한 건축계의 대응이 주목을 받는 등 공공성이 강조됐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2만 명이 가까운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갑자기 발생하자 건축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유행되기 이전부터 마분지와 종이를 이용한 건축의 가능성을 탐구해 온 반 시게루(2014년 수상)는 종이 건축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뒤이어 역시 일본 건축가인 이토 도요는 이재민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력감과 고통감을 서로 보듬어 극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모두를 위한 집’을 제안해 폐허 속에서 삶의 희망을 주는 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12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과 2013년 프리츠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미래의 수상자를 기다리며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프리츠커상은 노벨상만큼의 지위를 차지하며 건축계의 거장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예술과 기능, 사적인 공간과 공공성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대의 물음에 대답해 온 건축가라면 누구나 편견 없이 수상자로 선정해 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하 하디드처럼 단 하나의 준공작을 가진 여성 건축가를 수상자로 지정하는 용기와 혁신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가을이 지나면 프리츠커상 심사위원진은 2017년도 수상자를 가리기 위해 심사숙고에 들어간다. 내년 1월에는 어떤 얼굴이 이 영예로운 상을 이어갈지 자못 궁금하다.



현대건설, 리처드 마이어와 장 누벨을 만나다

우리 회사 역시 프리츠커상 수상자의 작품을 시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 우리 회사가 준공한 강릉 씨마크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 1984년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흰색의 미니멀리즘 건축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가장 아름다운 색이고, 순결의 상징이며, 절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백색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바 있다.

우리 회사는 경포 해변과 대관령 풍경과 어우러진 지

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흰색 호텔을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물로 시공해 미국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중동의 사막에서는 프랑스의 건축 거장 장 누벨의 작품을 시공 중이다. 2008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장 누벨은 프랑스 카르티에 미술관, 독일 라파예트 백화점, 일본 도쿄 구겐하임 미술관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설계

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현대미술관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 회사는 카타르 수도 도하 중심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만6000㎡ 규모의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건설 중으로, ‘사막의 장미(Sand Rose: 장미 모양을 띤 사막의 모래 덩어리)’를 모티브로 한 독특한 외관이 볼거린다. 316개의 원형판이 여러 각도로 뒤섞인 고난도의 이 비정형 건축물이 완공되면 카타르 최고의 건축적·문화적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프리츠커상 History

- 1979년 필립 존슨
- 1980년 루이스 바라칸
- 1981년 제임스 스틸링
- 1982년 케빈 로시
- 1983년 I.M. 페이
- 1984년 리처드 마이어
- 1985년 한스 홀라인
- 1986년 고틀리트 뵘
- 1987년 단게 겐조
- 1988년 고든 번사프트 오스카르 니에메르
- 1989년 프랭크 게리
- 1990년 알도 로시
- 1991년 로버트 벤투리
- 1992년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
- 1993년 마키 후미하코
- 1994년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 1995년 안도 다다오
- 1996년 라파엘 모네오
- 1997년 스페레 렌
- 1998년 렌초 피아노
- 1999년 노먼 포스터
- 2000년 험볼트스
- 2001년 헤르초크 & 드 뵘
- 2002년 글렌 머컷
- 2003년 예렌 웃손
- 2004년 자하 하디드
- 2005년 톰 메인
- 2006년 파울루 멘데스 다로사
- 2007년 리처드 로저스
- 2008년 장 누벨
- 2009년 페터 쉰토어
- 2010년 세자마 가즈요 니시자와 류에
- 2011년 에두아르두 소투 드모라
- 2012년 왕슈
- 2013년 이토 도요
- 2014년 반 시게루
- 2015년 프리아오토
- 2016년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해외기업경영트렌드 ⑨ 인스타그램 Instagram

8000만장 '이미지의 힘'으로 SNS 시장을 뒤흔들다

(하루에 공유되는 사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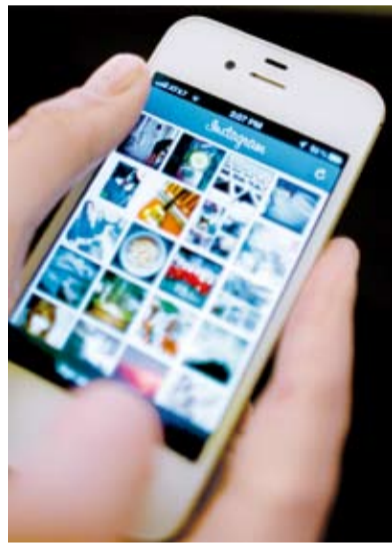
2010년 탄생한 인스타그램은 창업 6년여 만에 상반기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페이스북(72%)과 핀터레스트(31%)에 이어 세 번째 시장점유율(28%)을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하루 평균 8000만 장의 사진이 올라와 공유되며, '좋아요' 수만 42억 개가 넘는다. 어떤 혁신이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에 열광하게 만든 걸까. 글=전효진 <조선비즈> 기자

단순함 그리고 해시태그(#)

인스타그램은 즉석이라는 뜻의 '인스턴트(Instant)'와 전보를 보낸다는 뜻의 '텔레그램(Telegram)'을 조합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다.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Capturing and sharing the world's moments)'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은 '사진'과 '공유'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열광했다. 사진 한 장이 여러 줄의 글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

인스타그램은 순간 포착을 위해 복잡한 기능을 버리고 단순함을 택했다. 오로지 사진을 찍고 필터를 입혀 예쁜 색감의 사진을 내는 데에만 기술적 역량을 집중한 것. 당시엔 '아이폰4'가 등장하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해 아름다운 사진 이미지를 표출하려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욕구가 끓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이런 대중의 기호와 욕구를 절묘하게 알아챘다.

2011년 1월 인스타그램은 예쁜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공통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끼리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바로 '해시태그(Hash tag, #)' 기능이다. 해시태그를 통한 이미지 검색이 확산되면서 인스타그램은 또 다른 공유의 장이 됐다. 국내에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는 '#에스타그램(자녀)' '#러브스타그램(연인)' '#남편스타그램(배우자)' '#명스타그램(반려견)' 등 다양하게 변형된 해시태그가 나오면서 사진 공유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먹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가 2014년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신조어로 등록된 사례도 있다. 먹스타그램은 동사 '먹다'와 인스타그램이 더해져 탄생한 신조어다.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행위 등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용자들은 음식 사진을 올릴 땐 '#먹스타그램' 태그를 붙인다. 해시태그를 달고 올린 음식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2012년 4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다고 밝혔고, 10억 달러에 회사를 사들였다. 인수되기 전 인스타그램의 기업 가치는 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수십 배로 뛰었다.

문화를 창조하는 가상세계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 포맷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2013년 6월 인스타그램은 동영상 기능을 추가한 '비디오 온 인스타그램(Video On Instagram)'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동영상을 찍고 편집해 올릴 수 있는 기능이다. 업로드 영상 길이는 15초로 제한된다. 트위터 '바안'의 6초보다 길고, 15분 길이의 동영상 올릴 수 있는 유튜브에 비해서는 훨씬 짧다. 인스타그램 출범 이후 줄곧 유지해 왔던 정사각형 포맷도 다양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이 2012년 1월 사용자 1억 명 돌파를 기념해 직원들과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은 2년 전 트위터 사용자 수(2억 8000만 명)를 제친 데 이어 지난달 5월 사용자 수 5억 명을 넘겼다. 서비스 시작 5년 8개월 만의 일이다.

한 비율의 고품격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보다 폭넓게 공유되면서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인을 공통 관심사로 엮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10년 10월 스탠퍼드대 출신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과 마이크 크리거(Mike Krieger)가 공동 창업했다. 두 창업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현할 기술을 공리했다.

케빈 시스트롬은 2003년 스탠퍼드대 학교 2학년에 재학했을 때 대용량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포토박스'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생활정보 사이트 '크랙리스트'를 모방해 '트리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시스트롬은 2010년 넥스트스톱에서 일할 때 인스타그램의 기원이 되는 위치공유 서비스 '버블'을 제작하기도 했다.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크리거는 브라질 출신의 컴퓨터 공학도로 신호와 상징 시스템, 심리학, 언어학, 철

학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이들은 평소 사람들의 심리분석에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관심이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기보다 심리학을 적절히 활용해 성공한 사례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은 자신만의 취향과 일상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고, 국적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상세계'로 거듭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만든 가상세계는 기존에 없었던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가 현실 세계에서 신조어로 재탄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인스타그램이 시작된 2010년 유명 스타들이 인스타그램을 즐겨 쓰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찍는 셀프카메라의 문화가 확산됐다. 당시 시작된 '셀피(Selfie, 자기촬영)' 태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됐고, 2013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셀피'를 올해의 단어로 꼽기도 했다.

인 크리스티, 소더비는 경매 사진을 인스타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의 검색 기능을 통해 좋아하는 예술가를 찾고 예술품을 구매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에 뛰어난 도널드 트럼프는 인스타그램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물 중 하나다. 트럼프는 썬바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난하는 비디오 영상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활발한 소셜 미디어 전략으로 경쟁자를 압박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가치는 수십 배로 뛰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은 비즈니스 블로그를 통해 '인스타그램 모든 광고주에게 페이스북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겠다'며 "정확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의 가입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이마케터는 인스타그램의 올해 광고 매출액이 5억9500만 달러에 달하고, 2016년 14억 8000만 달러, 2017년 28억1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릴린치 역시 인스타그램 광고 매출이 2017년 10억 달러, 2020년 38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듯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스타그램의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세다. 시티그룹의 마크 메이 애널리스트는 인스타그램의 가치를 기존 19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말 인스타그램의 사용자수는 2년 전(3억 명)에 비해 50% 늘어난 6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 사무실에 장식된 플라로이드, 즉석사진을 연상케 하는 정사각형 모양은 인스타그램의 '심볼'이 됐다.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의 오늘

인스타그램의 오늘	2016년 기준
하루 '좋아요' 클릭 개수(개)	42억
사용자별 하루 평균 사용 시간(분)	21
미국 이외 지역 사용자 비중(%)	80
하루 공유되는 사진(장)	8000만
한 달간 사용자(명)	4억
지금까지 공유된 사진(장)	400억

예술·패션·정치로 영향력 전방위 확산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술·패션·정치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전 세계 사람들은 '#ootd(Outfit of the day)'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일상 패션 스타일을 공유하기도 하고 해외 브랜드 상품을 직접 주문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별다른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예술품 경매 분야에서도 인스타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매기업

연중기획 | 현장 탐방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국내 최초 단일호기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다

38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200m 높이를 웅장하게 솟은 연돌(굴뚝)과 거대한 건물을 마주한다. 충남 당진시 서북단 땅끝마을 교로리, 이곳에는 우리 회사가 최근 완공한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현장이 있다. 글=박현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지난 4일, 당진 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곳은 수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로, 현재 발전용량 500MW급 발전소 8기가 가동 중이다. 1~8호기를 지나 우리 회사가 시공한 9~10호기에 다다랐다. 현장은 상업운전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다. 현장 관계자와 함께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현장을 둘러봤다. 터빈동과 보일러동을 지나 전기집진기까지, 현장은 자동차로 다녀야 할 만큼 그 규모가 상당했다. 전기집진기 뒤로 우뚝 솟은 연돌의 높이도 200m가 넘었는데, 최상부는 구름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총 사업비 2230억원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최초로 1000MW급 대용량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순도 높은 전기에너지는 대부분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으로 보내진다. 연간 발전량 약 171억 kWh, 종합

효율도 43.82%로 높아서 연간 11만t의 연료를 절감한다. 이산화탄소도 30만t이나 줄일 수 있다. 한국동서발전(주)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는 기계·전기공사의 주관사(현대건설 50%, 경남건설 40%, 서화건설 10%)이자 토목·건축공사의 비주관사로 참여해 복합공정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우리 회사는 발주처와 2010년 7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10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당초 기전공사 착공일은 2012년 11월 1일이었으나 사전에 진행 중이던 토건공사의 철골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진행돼 일정을 한 달 앞당겼다. 2013년 2월 9호기의 보일러 및 스팀터빈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종합공정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후 발전소 건설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수전(受電·전력계통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시운전 준비를 완료하는 단계)을 2014년 4월(9호기)과 2015년 2월(10호기)에 마치고, 2015년 4월 전공정 중 하이dra이드인 보일러

최초 점화(Initial Firing)를 성공했다. 이를 통해 보일러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우리 회사는 터빈통기(Turbine Initial Steam Admission), 발전개시(Initial Generation) 등의 공정을 거쳐 6월 30일 발전소를 완공했다.

각 상황에 맞춘 공법으로 위기 극복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기술의 핵심은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발전 방식이다. 증기 압력이 246kg/cm²g 이상이고, 증기 온도가 603도 이상인 발전 시스템으로 일본, 독일 등 일부 선진국만이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증기발전 압력과 온도를 현대 기술이 허락하는 최고 수준까지

짧은 공기와 위험한 작업 등 약조건에도 큰 안전사고 없이 적기에 공사 마쳐...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이 모두 가졌다

끌어올리고, 효율을 높여 석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단일호기 가운데 최초로 1000MW급 대용량 출력을 낼 수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장 관계자는 "9·10호기는 앞서 건설돼 운영 중인 1~8호기 각각의 발전용량(500MW)의 두 배다. 기술력과 발전 규모 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앞선 화력발전소"라고 강조했다.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프로젝트는 총 건설비 중 20%를 환경설비에 투자할 정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당면한 환경 문제에 신경썼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국내 화력발전소 중 처음으로 국내 저탄장을 설치했다. 최첨단 환경설비인 국내 저탄장은 해외에서 수입된 석탄을 모두 실내에 저장해 비산먼지 발생 등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한편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발전소 규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다. 국내 발전소 공사의 특성상

토목건축공사·기계전기공사·석탄취급설비·탈황설비 등 여러 개로 분리 발주돼 공정 간섭 문제가 발생했다. 협소한 현장 부지에서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 자재를 아껴갈 공간이 부족했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제때 납품해 주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특히 보일러 설치 단계에서 자재가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보일러 하부에서 이뤄져야 할 대형 모듈 조립과 인양이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기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각오로 크레인과 트랜스포터 등의 장비를 이용해 각 상황에 맞춰 공법을 바꿨다.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짧은 공기와 위험한 작업 등 약조건에도 큰 안전사고 없이 당초 스케줄대로 마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절반 역할을 하는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이곳에서 44개월간 쌓은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용량 발전소 주주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를 기대해 본다.



1 당진화력 9·10호기 현장 전경. 2 석탄 이송 설비는 부두에서부터 보일러로 이어진다. 3 탈기기(Degasser)를 인양해 터빈통물에 넣고 있다. 4 터빈 발전기 모습. 5 증기세척(Steam Blowing)을 위해 가배관이 설치되고 있다.

Interview

“프로젝트의 성공은 팀워크에 달렸다”

정예인 공기에 맞춰 공사를 손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직원들의 땀방울과 끈끈한 팀워크 덕분이다.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현장 직원들이 전하는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

적기 준공, 모두가 합심한 결과

김광진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1990년에 입사해 발전소 현장만 다섯 번째입니다. 본사 근무 일수가 37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현장을 다녔죠. 오늘 인터뷰하는 직원들 중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공사 현장 경력은 2014년 10월에 부임한 제아 제일 짧아요. 세 사람은 착공 때부터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현장에 애정이 많고, 잔뼈도 굵은 사람들입니다.

최상은 과장(이하 최) 1991년 전기사업부에 입사해 공사 임찰 및 견적 업무를 했어요. 우리 현장에는 전기 시공 관리, 전기 공무 담당자로 2012년 10월 부임했죠. 저는 현장 근무가 처음인데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현장을 착공부터 완공까지 보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희 과장(이하 박) 처음 시도되는 대용량 화력발전소 설치공사이다 보니 여러 과목에도 많이 겪었습니다. 공사 특성상 공정 간섭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고 철저히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녔죠. 최 보일러 압력부 배관 수압 시험(Hydraulic Test)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초 점화 전 마지막 성능검사와 인데 그에 필요한 자재가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시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철야 작업을 해야 했죠. 우리 현장이 이렇게 준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이 단합해 안전·공정·품질·원가 관리를 철

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 안전대리(이하 신)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해선 안 되지만, 현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안전이요. 우리 현장은 고소 작업이 잦고, 중량물도 자주 다룹니다. 피크 시에는 1500명의 근로자가 한번에 투입되기도 했죠. 발전소 현장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했습니다. 본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지켜 가는 기본이고요. 안전지킴이 12명을 배관동·터빈동·집진동 등에 배치해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게 했죠.

현장소장 어려움이 없는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 현장은 앞서 말한 공정 간섭 문제, 기자재 지연 등으로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 전 직원 이 합심해서 안전을 위해 힘쓰고, 능률이 오르게끔 인원 관리를 한 덕분에 발주처와 약속한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최 함께 봉사활동도 종종 갔습니.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도 줌. 잔바람이 불면 인근에 사는 독거노인 분에게 난방렌트, 전기장판, 이불을 사주고 찾아가기도 했죠.

신 3인 1조로 난방렌트를 지는데, 렌트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깐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함께 감 당진시청 직원들이 '건설사 직원들 맞느냐'고 놀림할 정도였죠(웃음).

현장소장 이야기를 들으니 추억이 새록 새록 떠오르네요(웃음). 최초와 최고란 수식어를 모두 가진 현장인 만큼 이 경험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됐으면 합니다. 또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와 같은 1000MW급 인도네시아 플레본 II 화력발전소 공사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상업운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기전공사 현장 직원들. 신기술 안전대리, 김기홍 과장, 박태희 과장, 김광진 현장소장, 오현철 대리, 최상은 과장, 신민식 사원(왼쪽부터).

Dangjin coal-fired power plant units 9 and 10 with Korea's single largest capacity

Leading the large-scale power plant project
The Dangjin thermal power plant designed on imported coal currently operate eight units with a capacity of 500 MW each. New units 9 and 10 constructed by Hyundai E&C are busy preparing for coming commercial operation. The 223-billion-won project is to construct units 9 and 10, the first 1,000 MW-class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Most of high-purity electricity to be generated here is sent to the capital area and the Chungcheong-do region. The Dangjin thermal power station units 9 and 10 produce approximately 17.1 billion kWh on a yearly basis and have a high overall efficiency of 43.82 percent, leading to reducing 110,000 tons of fuel each year and as much as 300,000 ton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Our company received the order from the Korea East-West Power (EWP) as a main contractor for mechanical and electric work and also as a subcontractor for civil and construction work. After signing the deal in July 2010, our company began the construction



A worker is working on piping insulation.

tion in October 2012. We originally planned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electric generation on November 1, 2012. However, we could advance the schedule by one month as we finished steel frame work earlier than expected. Our company made units 9 and 10 ready for power receiving in April 2014 and February 2015, respectively. The initial firing took place in April 2015.

Overcoming challenges by using different methods of construction in the light of different situations
The units 9 and 10 are ultra super-critical coal-fired power plants. Only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have related source technologies regarding the USC system with a steam pressure of over 246kg/cm²g and a steam temperature of over 603°C. The USC power plants can raise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to the highest level as modern technology permits. Burning coal as much as possible leads to increasing the amount of steam

generation and dramatically cutting back on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from burning coal. In addition, our company invested 20 percent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to deal with common problems facing power plants consuming coal. In this sense, we built a coal yard within the site, which is the first of its kind among thermal power plants in Korea. We had to address many difficulties as we attempted to construct one of the country's largest thermal power plants. Different companies were in charge of different processes including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echanical and electrical system, coal handling system and desulfurization system, which caused disrup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on processes. We were determined to finish the construction on time under any circumstances and utilized different methods of construction to meet various situations. Thanks to the active responses, we could complete the construction on schedule without major safety accidents in spite of the relatively short construction schedule and the dangerous construction work.

현대건설이 시공한 화력발전소 BEST

뛰어난 기술력과 시공능력으로 국내외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행해 온 현대건설. 지난 10년간 우리 회사가 수행한 화력발전소 역작들을 소개합니다.

1 카타르 라스라판 C 복합화력발전소	2011년 4월 1일 준공
2 울촌 II 복합화력발전소	2014년 6월 30일 준공
3 베트남 풍정1 석탄발전소	2015년 12월 3일 준공
4 리비아 알칼리드 화력발전소	2016년 2월 29일 준공
•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2016년 6월 30일 준공
• 삼척그린파워 1호기 보일러	2016년 9월 30일 준공 예정
•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900MW 복합화력발전소	2016년 12월 25일 준공 예정
• 아랍에미리트 미르파 담수복합화력발전소	2017년 3월 31일 준공 예정
• 인도네시아 플레본 II 석탄화력발전소	2020년 9월 30일 준공 예정



현대건설 요리 고수 4인방이 서울 원서동의 한 오픈키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대훈 차장, 김재성 대리, 오태수 사원, 정희성 사원.

테마토크 요리 고수 4인방과 나는 식탁수다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 바로 요리죠”

남자와 요리. 두 단어가 요즘처럼 가까웠던 적도 없을 터. ‘맛집’이라면 부리나케 찾아다니고 직접 먹고 요리하며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직원들을 최근 만났다. 평균 자취 경력 13년, 요리에 빠진 남자들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글=김만화 / 사진=이슬기

나의 요리 입문기

Q 자취생활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구매실 오태수 사원(이하 오) 스푼한 살 대학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꼬박 6년 됐습니다. 대학교 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모아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 외로 재밌더라고요.

법무실 문대훈 차장(이하 문)

저는 스무 살 무렵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20여 년 자취생활을 했고, 현재 결혼 1년차 신혼생활 중입니다. 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해요. ‘집밥’을 먹고 싶어졌죠. 끓는 물에 내용물만 툭툭 떨어 넣으면 되는 인스턴트 요리는 애초부터 멀리하고 싶었어요.

IT지원실 김재성 대리(이하 김)

자취한지는 14년 됐어요. 요리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퇴근 후 장을 보는 게 일상이 됐죠.

플랜트설계지원실 정희성 사원(이하 정)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맛별이를 하셨기에 처음엔 굶어죽지 않으려고 요리를 했어요. 그러다 요리에 재미가 붙어 남들에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미국 여학연수 시절, ‘팟럭파티(Potluck Party, 각자 음식을 가져와 이웃들과 나누는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그날 메인디시로 닭갈비부터 보쌈, 고갈비를 준비해 갔죠. 그날 한식의 진수를 보여주려고 영웅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 3년 전 UAE 합산-5 UO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였어요. 돌관공사가 끝나고 배관 부서 17인분의 회식 세팅을 반장님과 함께 준비한 적이 있죠. 중동에선 하루

(Hamour)라고 제주도의 다급바리와 비슷한 건데, 회식날에 그 생선을 구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회를 떠드렸어요. 생선 손질은 통영에 계신 외삼촌에게서 배웠습니다. 외삼촌께서 배를 50여 년 정도 타셨거든요.

먹는 입, 말하는 입

Q 자신 있는 음식이라면.

정 사실 조리기구, 재료, 간단한 레시피만 있으면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지리와 같은 맑은탕이나 몸보신용 해신탕은 기본으로 하고요. 불 조절도 잘하는 편이라 구이류도 자신 있습니다. 참고로 손끝이 아물다는 소리는 자주 들었지만, 전적으로 노력파예요(웃음). **김** 제 전공 메뉴는 그릴음식이예요. 친구 부부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스테이크나 양갈비, 랍스터, 전복버터구이를 주로 해먹죠. 두께감이나 고기 식감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한우보단 호주산 청정우를 추천합니다. 칼질을 할 때 써는 느낌부터 다르거든요.

오 저는 삶은 요리요! 보통 돼지고기 수육을 많이 해먹는데 주로 수입육을 씁니다. 국내산 앞다리살은 기름이 많고 뒷다리살은 좀 딱딱하더라고요. **문** 요즘에는 와이프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주로 하는데, 그중 ‘램챗(Lamb Chop)’이란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양고기 로스 부분을 얇게 잘라서 적포도주와 양파, 올리브오일로 켜 고기를 소테(Saute, 살짝 튀긴 고기요리)해 먹는 음식이죠.

김 양고기는 특유의 노린내가 있어서 식재료를 잘 골라야 할 것 같은데, 마

에는 파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죠?

문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에선 양고기의 잡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간장, 마늘을 추가해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어요. 스테이크나 삼겹살이 지루할 땐 한번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

Q 좋아하는 세트 있으세요?

김 이연복 세프를 좋아해요. 대만대사관에서 최연소 주방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정받았지만 후각을 잃는 아픔도 겪었던 분이죠. 요리사에겐 최악의 조건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냄새를 맡아줄 보조 요리사를 곁에 두고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요리에 대한 집념이 참 대단해 보였죠.

오 저는 세트 말고, 차승원을 꼽고 싶어요. 차준마가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을 놀렸다고 하던데.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보셨죠? 차준마는 ‘먹는 입과 말하는 입’ 둘 다 야무지게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함께 참여한 배우들의 흘러 지나가는 말도 꼼꼼히 메모해 두었다가 음식에 반영하죠. 사람들의 대화도 재료로 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맛있다’는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재료나 과정뿐 아니라 먹는 사람의 입맛까지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해요.

식탁의 의미

Q 평소 요리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나요?

김 물론이죠. 요즘엔 ‘떡방’ ‘쿡방’이 대세잖아요? 가만히 보면 요리하는 주

인공은 대개 남자들이예요. ‘부엌일은 여자가, 밥은 여자가’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됐죠.

문 맞아요.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간의 가사분담 몫이 달라지는 걸 피부로 느껴요. 가정에서 재테크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애(愛)테크’입니다. 남자가 요리를 배울 때 집안이 화목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정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 느끼게 한 가지 있어요. 팟럭파티 때 30인분가량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양념을 만들거나 조리하는 일은 제가 직접 했지만, 재료 다듬기나 플레이팅은 함께 공부했던 후배들이 도왔죠. 모두 한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고도의 팀워크를 발휘한 순간이었어요. 한 사람이 도맡으면 고된 노동일 수 있지만 여럿이 수고를 나누면 일상의 최고 즐거움이 되는 게 바로 요리인 것 같습니다.

오 요리를 친숙하게 느끼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리는 ‘뚝뚝’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TV는 그 과정을 전부 보여주지 않아요. 우선 장을 봐야 하고, 구해온 재료를 다듬고 골라낸 뒤, 굽고 찌고 튀기는 작업을 거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말끔히 설거지해야만 끝나는 대장정이지요.

Q 점심을 싸먹 비워주는 사람이 고맙겠네요.

김 최고의 쾌감을 느끼죠. 사실 요리의 테크닉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손맛이죠. 똑같은 재료, 레시피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맛이 나오는 건 손맛 때문이에요. 손에 맛이 들어가는 건 아닐 테고, 결국 정성이지요, 마음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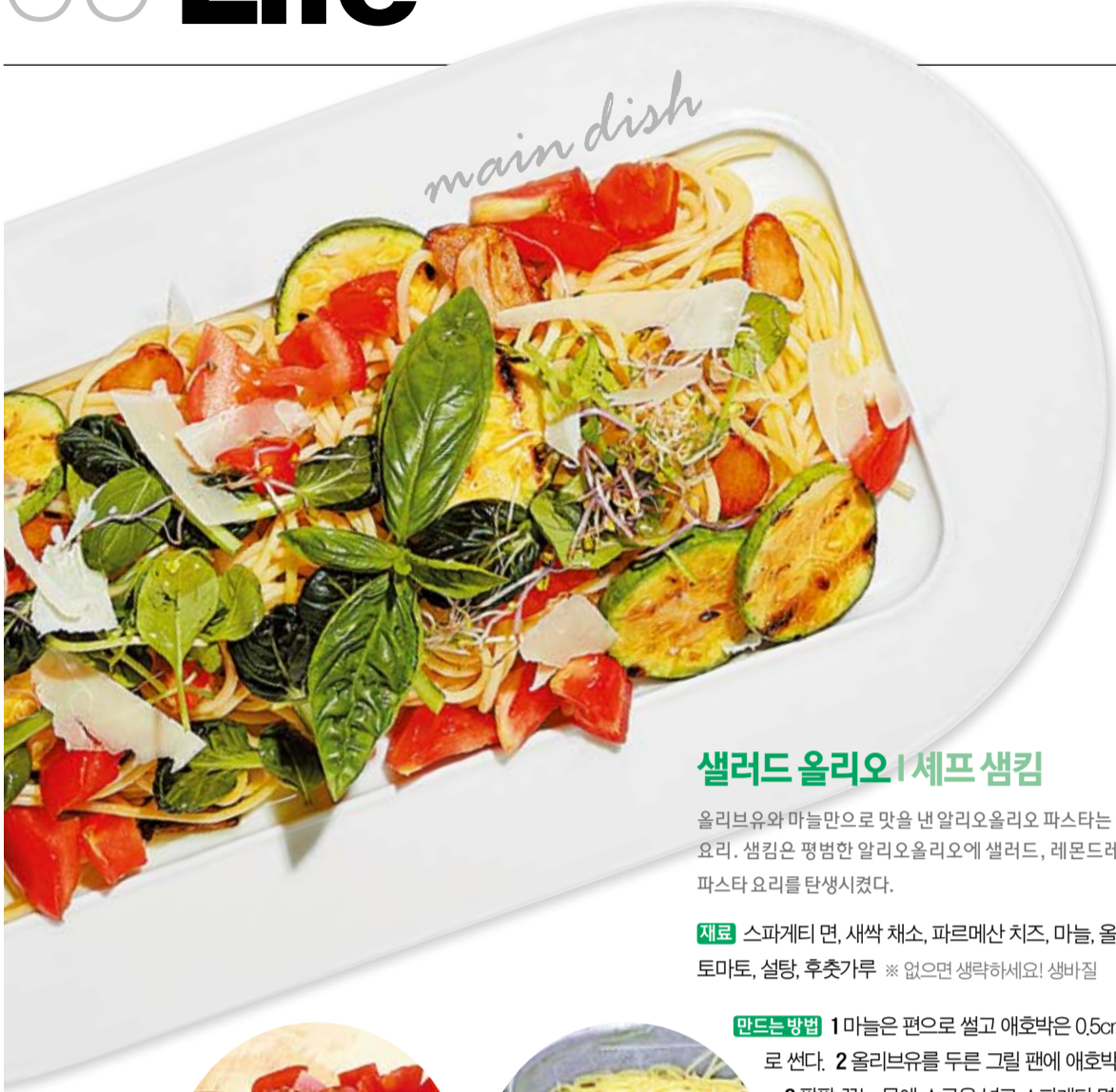
정 식탁의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음식을 먹는 곳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인데 바쁜 일상 때문인지 의나 주에 비해 ‘식’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음식을 통해 식탁에서 누리는 의미나 행복이 크게 말이지요.

문 요리는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해 큰 점수를 따죠. 돌이켜보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도 요리 덕분이예요. 미혼이신 우리 후배님들, 이번주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요리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우들이 테이블 위에 놓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세팅하고 있다.

이름/소속	문대훈 차장 법무실	김재성 대리 IT지원실	오태수 사원 구매실	정희성 사원 플랜트설계지원실
자취 경력	20년(결혼 1년차)	14년	6년	3년
주특기	램참, 된장찌개	스테이크, 등갈비김치찜	수육	생선회, 탕, 구이류 외 설 수 없음
롤모델	김소희 세프	이연복 세프	배우 차승원	어머니



샐러드 올리오 | 셰프 샘킴

올리브유와 마늘만으로 맛을 낸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는 간단하면서도 제맛을 내기 쉽지 않은 요리. 샘킴은 평범한 알리오올리오에 샐러드, 레몬드레싱을 올려 전혀 다른 풍미의 상큼한 파스타 요리를 탄생시켰다.

재료 스파게티면, 새싹 채소, 파르메산 치즈, 마늘, 올리브유, 생바질, 애호박, 레몬, 소금, 토마토, 설탕, 후춧가루 * 없으면 생략하세요! 생바질

만드는 방법 1 마늘은 편으로 썰고 애호박은 0.5cm 두께로 썬다. 토마토는 한 입 크기로 썬다. 2 올리브유를 두른 그릴 팬에 애호박을 올리고 후춧가루를 뿌려 굽는다. 3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스파게티 면을 삶는다. 4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마늘을 볶는다. 5 4에 면 삶는 물을 넣고 더 볶는다. 6 스파게티 면을 건져 5의 팬에 넣고 볶는다. 7 구운 애호박을 6에 넣고 함께 볶아 파스타를 완성한 뒤 접시에 담는다. 8 레몬즙, 올리브유, 설탕을 섞어 레몬드레싱을 만든다. 9 파스타에 토마토와 새싹 채소를 올리고 레몬 드레싱을 뿌린다. 10 채소 위에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올리고 생바질을 얹어 완성한다.



1

테마칼럼

“어때유~쉽쥬?” 요리 초보들을 위한 간단 레시피

바쁜 일상을 사는 젊은 부부나 싱글족, 초보 주부들 사이에서 ‘쿡방(요리방송)’의 인기는 여전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레시피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기 때문. 그중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매주 한정된 재료로 단 15분 만에 의뢰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를 선보이며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다. <사보신문>은 <냉장고를 부탁해> 레시피북에서 소개된 메뉴 중 ‘SNS를 달군 인기 메뉴’ 네가지를 선정해 소개한다.

(※ SNS 인기 메뉴는 인스타그램 내 해시태그 검색으로 조사했으며 수시 변동될 수 있음.)



‘파스타 고수’ 샘킴의 시크릿 키워드

타이밍 라면은 물을 끓여 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올 때쯤 면을 넣어서 끓이잖아요. 파스타 면은 그때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물의 가운데 부분이 마치 용암처럼 완전히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넣어야죠. 미묘한 타이밍의 차이지만 이것이 바로 파스타 면의 쫄깃함을 좌우합니다.

큰 냄비 끓는 물에 면을 넣을 땐 냄비 안에서 면이 돌아다닐 공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좁은 냄비에 삶으면 면끼리 닿은 부분은 잘 안 익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은 뒤 계속 저어 주어야 합니다.

직접 맛보기 면의 익은 정도를 파악하는 건 먹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사람마다 원하는 면의 식감이 다르니까요. 스파게티 면만 해도 면의 굵기가 다르고 건면인지 생면인지에 따라 차이도 있기 때문이죠. 제조사마다 면의 상태가 다르므로 제품 뒷면의 조리시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3 연복풍 덮밥 | 김풍

게맛살·팬이버섯·대파를 볶아 증식 맛을 낸 이연복 셰프풍의 덮밥 요리. 조리 특성상 재료가 길고 큼직한데다 녹말기가 있어 플레이팅 시 풍성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재료 밥, 생강, 고춧가루, 게맛살, 고량주, 녹말가루, 대파, 식용유, 달걀, 팬이버섯, 참기름, 마늘, 간장 * 넣으면 더 맛있어요! 버섯류(표고버섯 등)

만드는 방법 1 팬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볶는다. 2 대파의 흰 대 부분을 길게 채 썰어 1의 팬에 넣고 볶는다. 3 2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간장을 넣고 볶다가 고춧가루와 잘게 찢은 게맛살을 넣고 함께 볶는다. 만약 게맛살이 비리다고 느껴지면 맛술을 첨가한다. 4 3에 고량주를 약간 넣어 계속 볶는다. 5 4에 팬이버섯을 듬뿍 넣어 숨이 죽을 때까지 볶는다. 6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 5에 붓고 끓인다. 재료가 다 익었다 싶으면 마지막에 녹말을 푼 물로 농도를 잡는다. 7 달걀프라이를 만들고 밥을 준비한다. 8 접시에 밥을 담고 6을 충분히 끼얹은 뒤 달걀프라이를 올려 완성한다.



렛잇컵 | 홍석천

찐 고구마, 저칼로리 두유, 새콤달콤한 과일, 요구르트를 층층이 담아 만든 다이어트용 디저트. 이 음식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레시피북에서 ‘SNS 인기메뉴 1위’를 기록했다.

재료 찐 고구마, 키위, 오미자 원액, 두유, 사과, 홍시, 딸기, 플레인 요구르트, 생고구마 * 바꿀 수 있어요! 찐 고구마 → 찐 감자나 당근, 두유 → 우유 / 넣으면 더 맛있어요! 무화과, 황도복숭아(통조림), 꿀

만드는 방법 1 찐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으갠다. 2 으갠 고구마에 두유를 잘 섞는다. 3 딸기는 저며 썰고, 키위와 사과는 잘게 다진다. 4 와인잔에 고구마-키위-사과-요구르트-고구마-딸기-요구르트 순으로 쉼이 쌓는다. 순서는 취향에 따라 바뀌도 무방하다. 5 와인잔에 쌓은 재료들이 잘 포개지도록 잔을 살살 흔든다. 6 와인잔에 오미자 원액을 넣어 렛잇컵을 완성한다. 7 사이드 메뉴를 만든다. 각종 과일을 다져서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은 다음, 속을 파낸 홍시에 담는다. 생고구마를 막대 모양으로 길게 썰어 함께 낸다.



2

연양만점 | 셰프 샘킴

‘연’어와 ‘양’배추 맛이 ‘만점’인 요리라는 의미의 연양만점. 훈제 연어 속에 볶은 양배추를 채운 뒤 발사믹과 요구르트소스를 곁들인 새콤달콤한 요리.

재료 양배추, 양파, 소금, 훈제 연어, 플레인 요구르트, 레몬, 감자, 발사믹 식초, 올리브유, 대파, 설탕, 튀김용 기름 * 바꿀 수 있어요! 요구르트 → 사워크림 / 넣으면 더 맛있어요! 케이퍼, 딜 등 허브류

만드는 방법 1 양배추는 채 썬 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넣고 볶는다. 이때 소금으로 적당히 간한다. 2 감자와 대파, 양파를 곱게 채 썰어 키친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뺀다. 3 도마 위에 랩을 깔고 훈제 연어를 얹는다. 이때 연어 끄트머리가 살짝 포개지도록 넓게 펼쳐둔다. 그 위에 랩을 한 번 더 얹고 방망이 등의 도구로 잘 두드린 다음 위에 얹은 랩을 벗긴다. 4 플레인 요구르트에 레몬즙, 다진 양파를 섞고 레몬 껍질을 갈아 넣는다. 5 발사믹 식초에 설탕을 넣고 졸인다. 6 연어에 볶은 양배추를 올린 뒤 랩을 이용해 동그랗게 감싸며 모양을 잡아 연어쌈을 만든다. 7 접시에 4의 요구르트 소스를 얹는다. 연어쌈은 랩을 벗겨 동그란 모양 그대로 요구르트 소스 위에 가지런히 올린다. 8 2의 채 썬 감자와 대파, 양파를 기름에 튀긴다. 9 연어쌈 위에 튀긴 채소를 올리고 5의 발사믹 소스를 뿌린다.



appetizer



생각의좌표

당 태종 이세민의 겸손과 절제 리더십

당나라의 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집권했던 626년부터 649년까지 만 23년은 중국사에서 최고 융성기 중 하나로 꼽힌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의 연호(年號)를 따 '정관의 치(貞觀之治)'라고 칭송했다. 이 기간 동안 당나라는 중국 고대 3황제인 요·순·우 삼대(三代)에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구가했고, 그 주역인 당 태종은 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康熙帝)와 더불어 지금도 중국 최고의 황제로 평가된다.

이세민은 당초 아버지인 고조(高祖) 이연의 둘째 아들로, 태자 신분이 아니었다. 당연히 황제에 오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세민은 28세이던 626년 7월 2일, 아버지를 찾아가 "형 건성과 동생 원길 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깜짝 놀란 고조가 이들을 급히 부르자 이세민은 다음 날 새벽 현무문(玄武門)을 들어서던 두 형제를 무참히 살해했다. 현무문은 당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長安城·지금의 중국 산시성 시안)의 북문으로 황제가 거처하는 대명궁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다. 세민은 이견성의 심복이던 현무문의 수비대장 상하를 미리 매수해 두는 지략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2개월쯤 후 반(半)강제적으로 황제의 지위를 물려받은 태종은 지금껏대로 보면 정권을 찬탈한 패륜아였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한 명군(名君)이 됐다. 그 비결은 뭘까. 이세민이

통치기간 중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기록한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등장한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책을 가까이하는 리더

젊은 시절 타고난 무장(武將)으로 재능을 보였던 이세민은 황제가 된 후에는 항상 책을 가까이하는 이른바 수불석권(手不釋卷)형 리더로 변신했다.

수십만 권의 장서를 갖춘 황실 전용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세 지식 습득에 밤낮으로 노력했고, 군용 토벌 전쟁에서 서에 이론서를 써낼 만큼 문예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가 이정(李靖) 장군과 함께 역대 병서(兵書)의 특징을 논한 『당리문대(唐李問對)』는 『손자병법』과 더불어 남송 때 중국 최고의 병법 고전을 모은 『무경7서(武經七書)』의 하나가 됐다.

그는 특히 애민(愛民) 정신이 투철해 집권부터 세상을 다감할 때까지 겸손과 신중함에 힘썼다. 그는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만인의 것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당 태종 599-649년

하며 자신의 부귀보다 백성들의 살림을 살폈다. 또 "군주가 한마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민심은 뿔뿔이 흩어지고 반란을 도모하는 자가 나온다" (『정관정요』 22장), "나는 언제나 오직 겸손함과 공손함으로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함을 두려워할 뿐이요" (19장)라며 스스로 몸을 낮추고 언사(言辭)에 신중을 기했다.

조직원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이세민은 "천하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

술은 위나라 조조(曹操)에게 각기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당시 신하들이 궁궐 안에 동궁을 다시 축조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자 이세민은 이렇게 대답했다.

"집이 기거하는 궁전은 건축한 지 40여 년이 경과했지만 손상된 곳이나 파괴된 곳이 많지 않다. 다만 태자의 궁전은 목수들이 몹시 새롭고 기이하게 지으려 한 나머지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훼손된 곳이 많다. 지금 다시 고치고자 해도 예전 궁전과 닮게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정관정요』 18장)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세계 제국을 이룬 이세민의 인생·국가경영은 21세기 한국인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세민의 겸손과 절제, 자기 관리, 학습 자세 등에서 리더의 덕목을 살펴보자

다"며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중시했다. 현대 경영학적 용어로 풀어본다면 조직원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세민이 시종일관(始終一貫)한 것이다. 그 결과 신하들도 자연히 그것을 본받게 됐고, 당나라 조정에는 건강한 긴장감이 흘러넘쳤다. 역사가들은 "당태종 이세민의 용인(用人)술은 한나라 고조 유방(劉邦)에게, 그의 지략과 용병(用兵)

신하들의 거들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세민은 끝까지 증축 건의를 물리쳤다. 말 한마디가 곧 법인 절대권력자였지만 강한 의지로 검박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절제에 철저했다는 방증이다.

포용력 있는 인사와 부단한 학습

그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신하를 선택할 때 출신을 가리지 않았다. 최측근 핵심 참모로 태자 측 책사이던 위징(魏徵)

을 선택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반대세력 편에 있었다라도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없다면 파당(派黨)을 떠나 적극적으로 중용했다. 위징은 황제가 잘못했을 때 옆에서 바로잡는 직언을 하는 간의(諫議大夫)로 이세민이 생을 마칠 때까지 충신 역할을 다했다.

연개소문과 양만춘의 강고한 저항으로 고구려 정복 전쟁에 실패한 이세민은 그 후유증으로 51세에 사망했다. 하지만 당시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에는 비단길의 동서교역, 조공 무역을 통해 들어온 세계 각지의 진기한 물건들로 가득 찼으며 장안성은 남북 11개, 동서 14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격자형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국제도시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세계 제국을 이룬 이세민의 인생·국가경영은 21세기 한국인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요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신이나 가족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한 이세민의 진정성과 겸손, 엄격한 자기 관리, 그리고 늘 배우며 향상(向上)하려는 학습 자세 등을 배울만하다.

송의달
조선경제 대표



현대의 뉴비일기
4화 『세기의 봉사대결』
(사보신문)은 현대건설의 비전·기업문화 등을 담은 웹툰을 오는 11월까지 연재합니다.

이곳은 현대건설 임직원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수혜 취약 지역의 재예방을 위한 '집수리로드' 현장.
내 넘치는 체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찬스다!!
후후 다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군!
멋져요 누나!!
이 정도는 '기본'이지.
무슨 힘이 저렇게 세?!
꼭 원더우먼 같아요~!!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질 수 없지!
내 비장의 불꽃 페인트칠을 받아라!!
덜 대박!!!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봐 준 건가!
가까이서 볼래!
이번엔 또 뭐냐?
오 마이 갓!!!
저건 대체...!!!
모닝 파마를 하는 듯한 여유로움!!
하지만 꼼꼼한 붓질이다!!
큽..나의 패배를 인정하지.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 부터다!
[2차대결] 결식아동들을 위한 '사랑나눔 도시락' 봉사활동
힘이론 날 이기기 힘들겠?
입찌감치 포기하시지~!
하하하하 머리를 싸얌 머리를!
건설원 승!!
왕년에 미술학원 좀 다닌 줄이시다 이거야~!
[3차대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너무..아름다워!!!
또다시 현사원의 승리!!!
몇 번의 승부를 거둔 후
그들은 결국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게 된다!
무승부!
대결 종료!



올림픽 테니스 센터



박태환이 경기를 펼칠 올림픽 아쿠아틱 센터



리우 올림픽 파크



리우 패럴림픽 마스코트 '통' (왼쪽)과 리우 올림픽 마스코트 '비시니우스'

리우 올림픽(D-23) 즐길 준비 되셨나요?

키워드로 풀어본 리우 올림픽 이모저모

<7~8>

<문제> 다음 중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일까. ①상파울루 ②리우데자네이루 ③브라질리아. 정답은 'ㄱ'까지 키워드로 풀어본 2016 리우 올림픽을 꼼꼼하게 읽으면 알 수 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뒤 사상 최초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은 8월 5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이어진다. 글=김양희 <한겨레신문> 스포츠팀장 / 그림=리우올림픽 공식누리집, 한겨레DB

가 '미녀새' 이신바에바 등 추가 도핑검사를 받는 선수들에 한해 경기 출전을 허락했을 뿐이다. IOC는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의 도핑 테스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라카낭 스타디움 올림픽 개폐막식 이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는 바하, 데오도루, 코파카바나, 마라카낭 등 4개 지역 32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축구 경기만 리우 외에 벨루오리존치, 사우바도르,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등에서 열린다.

박태환 '마린보이' 박태환은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에 참가한다.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규정(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이는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음)에 걸려 태극마크가 좌절될 뻔했으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서 출전의 길이 열렸다.

성화 4월 22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는 5월 3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으며 1만2000여 명이 전국 327개 도시, 2만km 구간을 돌고 8월 4일 리우 주에 입성한다. 올림픽 성화 역대 봉송자 중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난민 수영선수도 있었고, 역대 최고령 성화주자인 이야이아라는 106세 할머니도 있었다.

우사인 볼트 '번개보다 빠르다'는 볼트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기록(100m

9초58, 200m 19초19)에 도전한다.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 금메달을 휩쓸며 2회 연속 3관왕에 올랐는데 이번엔 전인미답의 3회 연속 육상 3관왕을 노린다.

지카 바이러스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멀리뛰기 금메달리스트 그레그 러더퍼드(영국)는 정자를 냉동보관한 뒤 올림픽에 참가한다. 이유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지카바이러스로 인해 남자골프 세계 1위 제이슨 데이(호주)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그리고 비제이 싱 등 골퍼들과 미국프로농구(NBA) 3점슛의 제왕 스티븐 커리 등이 올림픽에 불참한다.

치안 불안 리우 현지 경찰들이 국제공항 앞에서 '웰컴투헬'(지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이라는 팻집막을 들고 파업을 할 정도로 브라질은 현재 치안상태가 엉망이다. 리우 주에서만 1시간에 13번꼴로 강도, 절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 오랜 경제 침체와 올림픽 준비로 리우 주는 현재 재정상태가 파탄나 있으며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탄핵돼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다.

코소보 리우 올림픽 참가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때보다 2개국이 늘었다.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IOC 회원국이 된 코소보와 남수단이 건국 뒤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기 때문. 코소보의 경우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으나 세르비아와 러시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은 리우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다. 보사노바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통 조빙의 이름을 딴 통은 브라질 아마존 숲의 다양한 식물을 나타



우사인 볼트

내고 앞으로 이루어진 머리에서 어떠한 물건이든 꺼낼 수 있다. 리우 패럴림픽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다.

펠프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31·미국)는 이번이 5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2000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2012 런던 올림픽 때까지 금메달 1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역사상 전 종목 통틀어 가장 많은 메달을 보유한 선수로, 이번엔 자신의 기록 깨기에 나선다. 지난달 첫 아이가 태어나 '아빠'로 도전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기도 하다.

한국 미국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는 한국이 금 10개, 은 5개, 동 10개로 종합 9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선수단 목표도 4회 연속 종합메달 순위 톱10 진입이다. 남녀 양궁이 단체인, 개인전 싸움을 노리는 진중오는 한국 올림픽 사상 최초로 3연패에 도전한다. 이대훈(태권도), 안창림, 안바울(이상 유도), 이용대-유연성 짝(배드민턴)이 금메달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름 새벽잠을 참아야 할 때는 언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한국보다 시차가 12시간 느리다. 올림픽 개막식은 현지 시간으로 8월 5일 오후 7시15분에 열리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8월 6일 오전 7시15분**이 된다. 결승전 같은 주요 경기는 대부분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새벽, 혹은 오전에 메달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긴 여름밤, 새벽잠까지 설쳐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한국시간 기준)를 꼽으면 이렇다.

7일 오전 4시40분 한국의 첫 금메달 총성이 울려 퍼질 가능성이 짙다.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 진중오가 나서기 때문이다. 진중오는 **11일 오전 4시30분**에 50m 공기권총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기도 한다. 기본배 최미선-장혜진 등 양궁 여자 단체는 **8일 오전 2시부터** 8회 연속 우승 금자탑에 도전한다.

국가대표에 대한 갈망으로 한국으로 건너온 유도 남자 73kg의 재일교포 안창림의 업어치기 판결과는 **9일 오전 6시10분**에 나온다.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에 출전하는 박태환은 **7일 오전 1시** 400m 예선부터 출전한다. 수영 결승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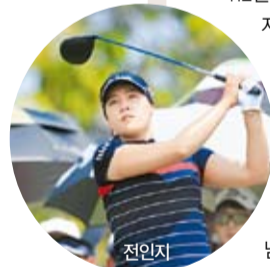
런던 올림픽 때 은메달의 아쉬움을 남겼던 태권도 남자 68kg의 이대훈은 **19일 오전 8시**부터 예선전을 치른다. 금빛 발차기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

112년 만에 올림픽에서 부활한 골프 여자 결승은 **21일 오전 3시50분**에 끝난다. 전인지 등 태극 남자들이 올림픽에서도 힘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손연재가 출전한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도 **21일 오전 3시20분**부터 펼쳐진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5일 오전 8시(피지), 8일 오전 4시(독일), 11일 오전 4시(멕시코)**에 조별리그를 치른다.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역사적인 도전도 놓칠 수 없다. 올림픽 금메달만 18개인 펠프스는 **10일 오전 10시** 수영 남자 접영 200m에 출전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볼트의 질주는 **15일 오전 10시**(육상 남자 100m 결승), **19일 오전 10시**(남자 200m 결승)에 볼 수 있다.



전인지



박태환



러시아 선수들의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이 사실로 드러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IOC



손연재

KTX보다싸다 비행기로 떠나는 포항 내연산 당일 여행

비행기만 타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다만 요금이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내륙 항공 노선 정상화와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여행사에 이례적인 조건으로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KTX를 타는 여행보다 더 저렴한,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그중 여행사 상품을 통해 포항 내연산을 다녀왔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당일 여행이다. 글=손민호·이석희<중앙일보> 기자/사진=임현동 <중앙일보> 기자



내연산 7개 폭포 트레킹...하루 만에 ok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를 타고 경북 포항에 가기 위해서다. 포항에선 내연산(710m)을 오를 작정이다. 40분 뒤 비행기가 이륙했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포항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공항 앞에서 여행사 버스를 타고 내연산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내연산까지는 약 40km 거리였다. 보경사 주차장에 도착해 인근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늦은 아침을 해결했다. 한 끼 식사와 내연산 입장료 3000원이 여행상품에 포함됐다.

오전 11시 보경사 매표소에서 관광 해설사를 만났다. 표지판에서 연산폭포까지 40분 거리(2.7km)라고 적혀 있었다. 해설사는 “쉬지 않고 갈 경우”라며 “보통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 내연산 자락에는 폭포 12개가 있다. 그래서 내연산은 ‘12폭포 트레킹’이 유명하다. 탐방객 대부분은 폭포 7개만 보고 돌아온다. 나머지 5개 폭포는 길이 멀고 험해 함부로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제일 먼저 상생 폭포를 만났다. 이후로 보현-삼보-잠룡-무풍-관음-연산폭포 등 6개 폭포가 이어진다. 낮 12시30분 연산폭포에 도착했다. 폭포마다 사진을 찍다보니 산행 시간이 늘어났다.

오후 2시 하산길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쉬지 않고 1시간을 내려오니 보경사 경내였다. 보경사를 둘러본 다음 절집 인근 식당에서 도토리묵 무침과 비빔밥을 먹었다. 여행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여서 이날 유일하게 지갑을 열었다.

오후 4시30분 일찌감치 포항공항으로 출발했다. 김포행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후 6시25분이지만 퇴근길이 겹칠 수 있었다. 6시쯤 포항공항에 도착했다. 다행히 포항공항에서는 출발 20분 전에 도착해도 탑승이 가능했다. 오후 6시25분 비행기가 이륙했다. 오후 7시15분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1시간15분 뒤 집에 들어왔다.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경주를 다녀올까 싶다.

Tip 내연산 당일 산행 상품의 주중 가격은 13만5000원부터. 김포-포항 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사 상품은 다양하다. 대개 9만9000원부터고, 1박2일 에어텔인 경우 주중 15만1200원부터다.



1 폭포와 동굴, 구름다리가 어우러진 관음폭포. 내연산 12폭포 중 여섯 번째 폭포다. 김포-포항 비행편을 이용하면 내연산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다. 2 선일대에서 바라본 경북 포항 내연산의 전망. 3 연산폭포 가는 길. 아이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잘 닦여 있다. 4 잠룡폭포 위 암봉에 선 선일대. 5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인 김노경의 이름이 내연산 바위에 새겨져 있다.